



세종문화회관 재개관 공연에 초청된 '아시아 중앙가무단'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 마련된 국악대학 연습실에서 '아시아 중앙가무단'이 타악곡 '소리여! 세종의 북소리여'를 연습하고 있다.

북소리에 혼 담아 새봄을 연다

'동동동♪♪', 웅장한 북의 울림이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간다. 겨우내 응크렸던 정신을 깨우듯 소리가 힘차다.

2월 23일 경기도 안성 중앙대 캠퍼스의 국악대학 연습실. 일반인들에게 아직은 낯선 신인 가무단인 '아시아 중앙가무단' 단원 1백여명이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학교 뒷산 기슭에 설치해 놓은 50평 남짓의 천막에서 하는 연습이지만 열기는 진지하다. 3월 2일 1년의 개보수 작업을 마치고 재개관하는 세종문화회관 오프닝 콘서트의 초청공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에 초청된 단체들의 이름만 들어도 '아시아 중앙가무단'의 실력이 무시못할 수준이란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과 같이 수준높은 기량을 자랑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아시아 중앙가무단'이 세종문화회관 앞 특설 무대에서 1천여 관객앞에서 펼칠 공연의 주제는 '소리여! 세종의 북소리여'이다. 대고, 중고, 노고 등 모듬북 70개와 사물들이 어우러져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

한다. 장엄한 북소리를 통해 재개관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세종문화회관의 터를 눌러주려는 게 기획의도다. 심금을 울려주는 찰랑찰랑한 북소리가 어찌나 힘찬지 모든 나쁜 기운이 금방 사라질 것만 같다. 또한 모듬북들이 만들어 내는 의성어는 전쟁터

중앙대 타악연희와 학생들로 구성 '소리여! 세종의 북소리여' 공연

에서 출정을 앞둔 장수들의 비장함마저 느끼게 한다. 간결하지만 절도 있는 무용수들의 짙은 몸놀림도 전통 무용의 진수를 맛보게 한다.

중앙대학교 타악연희와 학생들로 구성된 '아시아 중앙가무단'이 창단된 것은 지난해 8월. 1년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평양에서 열린 '류경 정주영 체육관 기념행사', '금강산 관광 5주년 기념공연', '한중일 아시아 창단 공연', '대만 원소절 국제 무용제' 등 굵직굵직한 행사가 많이 초청됐다. 그 비결은 단장인 채향순 지도

교수(48)의 스파르타식 연습지도와 국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다. 채 교수는 가무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학중에도 하루 10시간 이상씩 단원들을 연습실로 불러들였다. 춤과 노래, 연주 등 국악의 모든 장르를 두루 섭렵하고 나비춤과 바라춤 등 불

북 70개, 사물들과 어울려 '웅장' 다양한 장르 불교작법무도 익혀

교작법무도 익히게 했다. 그래서 아시아 중앙가무단원들은 개개인의 파트와 장르가 따로 나뉘져 있지 않다. 춤, 노래, 연주 등 공연의 레퍼토리가 일단 결정되면 1인 다역 시스템을 가동해 외부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숨은 노력 덕분에 빠른 시간내에 기성 가무단 못지 않은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올해도 '아시아 중앙가무단'의 달력은 많은 공연 일정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우선 3월 7일 서초동 국립국악원에서 열릴 '최승희 봄 댄스'를 비롯해 각종 정기공연의 초

청, 한중일 아시아가무단 공연 등.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우리 전통음악을 알릴 수 있는 그날까지 그들의 연습은 계속된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관 기자

인터뷰

채향순 단장



"우리의 음악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중앙가무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어느 한 장르에만 치우치지 않게 가르칩니다. 타악, 연주, 춤, 노래 등 가무학 일체를 모두 연주할 수 있는 종합 국악인을 배출해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채향순 교수(중앙대 국악대학 타악연희과 ·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제97호 삼풀이춤이수자 · 사진)의 국악철학은 뚜렷했다. 이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채 교수에게도 해당된다. 채교수는 판소리에서

종합예술인 양성 목표, 佛敎의 대동춤 개발에 한몫 할 것

부터 승무, 나비춤, 사물놀이, 불교 작법무까지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장르를 두루 섭렵했다. 심지어는 대동춤(함께 여럿이 어울려 추는 춤) 연구를 위해 1년간 태극권을 연마하기도 했다. 또한 채 교수는 불교무용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98년 대전시립무용단의 '승무' 공연을 시작으로 2000년 오페라 지지공연, 2003년 보현행원품송 등 꾸준히 불교무용을 무대에 올리려 노력했다. 2년전부터는 타악연희과 강사인 능화스님(구양사 주지)에게 불교작법무를 사사받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전통무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의 중앙가무단, 일본의 간자키히데키 무용단과 함께 아시아 가무단을 창단해 1년에 한번씩 한중일 세나라에서 순회공연도 하고 있다.

채 교수는 앞으로 운판, 종, 목어, 북과 같은 불교의 사물을 활용해 대중들이 함께 흥미를 느끼며 동참할 수 있는 불교의 대동춤 개발에도 한몫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티베트 염불 음반 그라미상 수상

최고 전통 음악상에 선정 ...기도, 명상, 세계평화 담아

티베트 불교 염불이 전세계를 감동시켰다.

티베트 세람 링(Sherab Ring) 사원의 염불을 담은 음반(사진)이 2월 8일 미국 LA에서 열린 '제46회 그레

미상 수상식'에서 최고 전통 음악상을 수상했다. 티베트 음반이 그라미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위원회는 "영적인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추세"라며 "세계인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점에서 그라미상 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음반"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 소식을 들은 세람 링 사원의 칼창(Kazhang) 라마는 "염불은 세상

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 보여주기에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타이 시투파 린포체를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한 시간 30분짜리 음반 속에 마하 무드라(Maha Mudra) 계통의 기도와 명상부터 세계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불까지 담았다"고 말했다. 티베트 불교의 한 종파인 카규(Kargyu)파 사찰인 세람 링 사원의 스님들은 이 염불을 수백년째 해오고 있다. 뉴욕=강유신 특파원

육 법 등 (六法燈)

의정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주동원전기 출판 및 대리점 모집

불자의 금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 2004년 2월 24일 지사장 정기 회의에서 의결한 고객배려운동 실천과 나눔의 손잡기 운동 전개에 모든 지사장님들의 적극 활동을 부탁드립니다.